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주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부모 가족 부모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

201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선 주

한부모 가족 부모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

박 주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선 주

인 준 서

박선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7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현황과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요분석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모교육이 무엇인지, 한부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모교육내용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두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았다.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을 살펴보면 95점 만점 중 평균 58.99점, 65점 미만이 전체 연구대상자 중 약 80%가 속하였다. 양육부담감은 5점 만점에 평균 4.09로 한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의 현황 및 욕구를 분석한 결과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한부모는 42.2%,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한부모는 57.8%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였더라도 51.1%가 1회 참여한 것으로 보아 한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참여

한 부모교육 내용에는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내용’ 순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주로 참여하였다. 반면 부모교육에 참석한적 없는 한부모들의 미참석 이유로 64.2%가 시간과 비용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에게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부모교육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한다’의 비율이 60.1%,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가 28.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교육 횟수는 1년에 2회(39.2%), 1달에 1회(20.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교육장소는 약 70%가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단체를 선호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및 양육부담감을 살펴본 결과 부모효능감은 한부모의 성별과 최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부모효능감 평균 점수는 56.60점, 여성일 경우 부모효능감 평균 점수는 59.48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의 성별과 나이, 가족형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통계적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내용에 따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의 교육욕구는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

의수, 부모효능감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영역과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은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는 모형 2에서는 가족형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 부모효능감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3에서는 가족형태, 최종학력, 자녀의 수, 부모효능감, 양육부담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부모교육 교육내용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평균소득과 자녀의 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2에서는 한부모의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 부모효능감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형 3은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유의하지 않고 양육부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부모들의 부모효능감은 대체적으로 낮고 양육부담감은 매우 높으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부모효능감, 양육부담감에 따른 부모교육의 욕구 및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한부모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하여 욕구를 분석한다면 더욱 유용하고 의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8
1. 한부모가족	8
1) 한부모가족의 개념	8
2)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현황	9
(1) 주거지원	10
(2) 법률지원	11
(3) 교육지원	12
(4) 양육지원	13
(5) 외국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14
2. 건강가족적 관점	15
3.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	18
4.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감	20
5.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	25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문제	28

2.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29
1) 예비조사	29
2) 본조사	29
3. 변수정의 및 측정도구	32
1) 부모효능감	32
2) 양육부담감	33
3) 부모교육에 대한 현황 및 욕구	33
4)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	33
4. 분석방법	35
IV. 결과 및 해석	36
1.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36
2.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38
1) 부모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	38
2) 한부모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	41
3.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차이	44
1)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44
2)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	46
4.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	48

V. 결론 및 제언	64
1. 요약 및 결론	64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7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9
〈표 2〉 연구 참여 대상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	30
〈표 3〉 부모효능감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32
〈표 4〉 부모교육내용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34
〈표 5〉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36
〈표 6〉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37
〈표 7〉 부모교육 참석여부	38
〈표 8〉 참여한 부모교육 내용 분석	39
〈표 9〉 부모교육의 도움여부	40
〈표 10〉 부모교육 미참석 이유	40
〈표 11〉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	41
〈표 12〉 부모교육 운영방법에 관한 욕구	43
〈표 13〉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45
〈표 14〉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	46
〈표 15〉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	50
〈표 17〉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53
〈표 18〉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55
〈표 19〉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57
〈표 20〉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59
〈표 2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가족자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61
〈표 22〉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62
〈부록 1〉 질문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가족도 생활주기, 기능 등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여성경제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초혼연령이 증가하였고, 출산율 급감, 고령화 현상, 맞벌이 가구 증가, 부부역할이 변화하였다. 빠른 환경 변화로 많은 사회문제와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 중 1990년대 급증한 이혼률은 가족해체, 한부모가족 증가로 경제적문제, 자녀양육문제, 사회적 편견에 따른 당사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등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갑자기 증가한 이혼의 원인은 우선 결혼의 의미와 가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제도적 의미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 중 하나로 바뀌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최규련, 2005).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력 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역할 기대 갈등, 자녀 양육문제, 일과 가정의 이중고 스트레스 등으로 부부간의 잦은 마찰을 경험하면서 이혼률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1990년에 1.1이었던 조이혼율이 1999년에는 2.5로 오르고, 2003년도에는 이혼건수가 167.1천건, 조이혼율이 3.5,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도 54.8%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도부터 이혼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은 조이혼율 2.3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OECD 주요 국가들 중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높은 이혼률과 함께 자녀를 홀로 힘들게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전체 가구 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7.4%, 2005년 8.6%, 2010년 9.2%, 2014년 9.4%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중 약 77%가 여성 가구주인 모자가족이 대부분이며 약 21%가 남성 가구주인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형성원인은 이혼이 32.8%로 가장 많고, 사별이 29.7%, 다음은 유배우 25.9%, 미혼 11.6%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1995년 사별이 54.8%, 이혼이 12.9%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확실히 이혼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이 커다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 형성 원인이 무엇이든 가족해체를 경험한 한부모가족은 가족체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부 혹은 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자녀교육 문제, 낙인과 편견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진다(김혜경외, 2010). 한부모가족의 문제점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하는 부담 22.4%, 자녀양육 부담 증가 5.9%로 나타나 한부모들의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강조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가계주의 성별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한부모는 이전에 수행해 왔던 역할 외에 그동안 모가 수행했던 가사 및 자녀양육 모두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김혜경외, 2010). 부자가족의 자녀는 모의 부재로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정서적지지 부족하며 감정표현 경험을 가질 기회가 없어짐으로써 타인과 친밀감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어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Demo, 2000; 김혜경외,

2010; 여성가족부 2013). 저소득 부자가족 남성의 경우 빈번한 음주에 따른 아동폭력, 학대 등의 아동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문선화 외, 1998; 박성석외, 2009). 모자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부의 부재로 특히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다. 주 부양자였던 남편의 상실로 부자가족보다 경제적 곤란이 더 심각하게 초래된다. 여성의 재취업의 어려움, 경력단절,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부자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최규련, 2007; 한정원, 2014). 또한 가족부양자로서 부의 존재가 상실되면서 모든 가사나 자녀양육 이외에 생계까지 책임져야하는 역할 변화를 경험하면서 역할 과중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최규련, 2007).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가장으로서 자녀에게 행사하던 통제력과 감독권을 지닌 아버지가 사라짐으로써 자녀는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과 함께 작용하여 자녀의 부적응이나 비행을 가져올 수 있다.

한부모의 역할과중과 역할긴장 등은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쉬우며 낮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한다. 부모의 피곤과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자녀를 방치하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지도할 수 있으며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최규련, 2007; 박성석외, 2009). 이런 환경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비일관적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노출되기 쉬워 한부모가족 자녀의 비행과 일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구차순, 2002; 이재철, 1994; 전유진, 2006).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rg & Kelly, 1979). 일관성 없는 태도와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기술 부족 등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2014, 김정란). 인간은 출생

과 동시에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성장하며 가족구성원으로 생활한다.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체계이다. 가족관계의 양상은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심리사회적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의 경험이 전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각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충족을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두었다. 각 단계별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에릭슨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각 발달단계에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건전한 자아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초기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 걸쳐 자아가 발달하는데 성인기가 되기전까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율성이 발달하거나 혹은 수치심, 분노가 발달하게 되며 주도성이 발달하는 반면 죄의식으로 열등감이 발달하게 된다(최옥채외, 2007). 또한 아들러는 개인심리학 이론을 내세우며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전제하고 사회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성향과 자녀 성격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Schaefer, 1959; Baumrind, 1973; 박정윤, 2014; 지영숙, 2004). Schaefer(1959)와 Baumrind(197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그 자녀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긍정적 성향이 발달하고 엄격한 통제와 많은 제약을 가하는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공격

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자신이 버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불안감, 집중결핍, 공허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 자녀의 공격성향, 사회성 부족, 비행과 일탈적 행동, 학교생활 부적응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이는 부모의 한쪽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로 자녀 지도, 양육, 보호에 소홀해짐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원인이 된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 하였다(지영숙, 2004; Belsky, 1990; Rollins & Thomas, 1979).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운, 2014).

한편, 프로이드는 유아기에 부모와 겪는 관계 경험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두명의 부모가 정상적인 아동의 발달에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프로이드학과와 구조기능주의론자들은 한 부모의 부재는 “결손”의 개념으로 인식하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건전한 성격형성과 성역할 습득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 관점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함께 한부모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 결손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부담감을 더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방식이 중요해짐으로써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청소년기에 불안정한 자아를 강화시킨다. 반면 청소년기의 부모갈등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적응을 저해한다(박선훈외, 2008).

가족체계이론 중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의사소통기능이 있다(김소라, 2014).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정보가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

족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은정, 1992). 그만큼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부모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정란, 2014; Peterson & Zill, 1986).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 자녀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의 필요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강기정, 2005; 김정란, 2014; 황은숙, 2005). 한부모의 경우 개인의 내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 사회편견과 낙인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립성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소외감 및 패배감에서 벗어나 사회적응력을 향상 및 도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 중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충분히 보고되어졌다(도현심외, 2009; 정문자외, 2000; 한경자, 1997).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부모로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효능감도 함께 높아졌다.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발달을 돕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유지, 존속시켜주는 체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가족의 기능으로 사회화 기능, 자녀 출산, 개인의 정체성 구축, 일, 자원, 가치관, 친밀감 형성 및 공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있다(Olson & DeFrain, 1994). 가족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시기에 처

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발달적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잘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가족은 좀 더 기능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유영주, 2001).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높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은 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위기를 경험하고, 이겨내고 또한 양부모가족과 다른 양상으로 살아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주기와 삶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부모의 역량을 증진시켜 부모효능감을 높인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향상되어 양육부담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립력을 길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부모들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부담감의 일반적인 경향 및 부모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혹은 유기된 자, 미혼자와 그 자녀를 의미한다. 세대주가 남성이면 부자가족, 세대주가 여성이면 모자가족을 의미하며 미혼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외하여 정의하였으며 한국여성개발원(1984)은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부나 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자녀와 가족을 이루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이라 정의하였다.

1997년부터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부정적인 결혼의 의미가 강한 ‘편부모’라는 용어 대신 하나이며 동시에 하나로도 충분히 온전하다라는 의미의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박성석외, 2009). 그동안 편부모 가정, 편부모가족, 편부모가구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어 불리다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한부모가족으로 정식으로 불리지기 시작하였다(정순임, 2014).

하지만 미혼, 조손가족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의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한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유기, 유기의 이유로 한쪽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세대주가 여성인 경우 모자가족, 세대주가 남성인 경우 부자가족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급여, 주거와 교육 및 양육 지원, 근로소득공제 등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01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이 법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대상자 신청을 하여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을 바탕으로 공적자료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접수 후 14일에서 최대 30일에 걸쳐 확인 및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통지 받고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법적지원과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지속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관리·확인하며 선정 기준이 초과될 시 급여와 보호가 정지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구체적인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3,372,526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3,891,346
<참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1) 주거지원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거주지를 건설·공급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H공사(서울지역)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에 근거하여 면적별로 입주자격 및 소득조건이 상이하다. LH공사는 한부모가족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일 경우 일정호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특히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 서민계층 보호 및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SH 공사는 선정 기준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두고 있다. SH 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대상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구청 입주대상자의 심의 및 선정을 거쳐 입주대상자에게 최종 선정통보가 내려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 외에 저소득 시민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용자해주는 지원,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단체에서 출선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적기업에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할 예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2)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실시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하여 원스톱 종합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상담, 합의, 소득·재산조사, 소송 또는 채권추심, 이행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불이행시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등급하락과 제금환급 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현장기동팀 운영으로 강제집행 등의 법적수단이 총 동원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는 1인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류상담, 소송서류작성,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법률 강연 및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구조절차는 사업수행기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조사에 착수한다. 그 후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의 화해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구조 결정시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사업수행기관 변호사, 공익법무관들이 소송대리를 실시하고 사건종결이 되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그 밖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관련 법률지원으로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복지법률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등을 상담 및 지원하고 있다.

(3) 교육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대상금액을 대학에 일괄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 밖의 교육지원은 하이서울장학금대학분야, 하이서울장학금공익인재분야, 청춘start장학금, 소나무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하이서울장학금 자립형사립고 분야, 씨코스비 여성 CEO 장학금, 푸른꿈 희망장학금 등 여러 장학 재단에서 저소득층 가정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만 24세이하)에게는 저소득층의 '한부모' 또는 '그 자녀'가 검정고시 학습을 할 때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학습지원 및 합격 축하금 30만원 지급 등의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양육지원

양육지원으로 모든 산모에게는 고운맘카드,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는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고운맘카드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다태아 임신 시, 70만원이내), 맘편한카드는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만0세~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0세~5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가정에는 양육수당으로 각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또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에 한해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양육지원으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및 간병방문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1:1로 안전하게 돌보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시소와그네, 드림스타트사업,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실시한 자녀 장려금정책이 있다.

(5) 외국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영국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가족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은 근로보조금, 아동보호프리미엄, 미망인부모수당이 있다. 근로보조금은 면세 일시금 수당으로 한부모가족이거나 자녀가 있는 동거가족인 경우 한화 약 475,000원이 지급되나, 소득보조, 구직자수당, 노동능력부재수당, 중증장애인수당을 26주 이상 받은 사람이 일주일에 16시간 노동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다. 아동프리미엄은 소득보조나 소득연계 구직자 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한화로 최대 약 19,000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보편적 제도로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4주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나 한부모가족, 소득지원급여자, 실업급여자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매주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아동세금환급공제와 근로세금환급공제를 통해 재정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지원이 제공되고 아동이 성년이 되면 한부모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양육부담감을 완화시키고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우선의 복지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수준개선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아동양육및발달지원보조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이하 CCDF)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양육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저소득가족 또는 일시적 공공부조 지원을 받는 가족이 일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시적 공공부조를 통하여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취업을 위하여 최대 5년까지 제한된 범위의 현금지원, 양육지원, 교육 및 직업교육, 기타지원을 제공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가 있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조치들이 강조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은 이 정책 틀 안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소득보장 도움과 대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보장 도움으로는 아동양육수당, 생계비선급지원, 아동수장 및 아동조세감면, 질병수당 등이 있으며 대인복지서비스는 아동양육후직에 해당하는 부모 시간, 상담·시설 수용, 법률부조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프랑스는 한부모가족이 장기적인 실업문제, 이로인해 발생하는 빈곤, 재정적 열악 상태가 심각함을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수당공단을 통하여 한부모보호급여와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급여는 197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산조사급여로써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소득이 법정 부양가족 별 상한소득금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다. 이는 보충성 급여로 상한소득금액과 수혜자 소득의 차이 분만큼 지급된다.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빈곤에서 탈출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건강가족적 관점

‘건강한가족’은 가족전체를 중심으로 개입하여 가족이 보유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1). 이 관점은 가족연구에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 개념은 강력한, 기능적인, 건강한, 적합한, 최적의, 정상적, 치료경력이 없는 그리고 건

전한 가족 등으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유영주, 2001). 미누친(Minuchin)은 가족체계가 여러 하위체계로 분화되고 분화된 하위체계를 통해 기능이 수행되며, 개인은 여러 하위체계에 속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각각의 기능과 권력을 갖게 되므로 개인의 관계유형은 가족의 수만큼 다양하고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관계체계 내에서 다른 하위체계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것을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라 하는데, 이러한 하위체계들 사이의 상호교류가 역기능적일 때 가족문제가 나타난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이며 잘 기능하는 가정에서는 가족성원들간의 관계가 친밀한 동시에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족들간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성원들 사이에 경계가 있고 각자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수용할 줄 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발생하는 변화에 잘 적응한다. 또한 잘 기능하는 가족은 권력을 공유하고 가족성원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분리와 성실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육성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따뜻하고 풍부한 감정을 드러낼 줄 알고, 세월의 흐름과 어쩔 수 없는 변화(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보다 강력해 지는 것, 부모의 감퇴되는 능력, 피할 수 없는 사별)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 1976).

건강가족적 관점은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건강 요인을 파악하여 가족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성장과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의 강점을 지지하고 강화하여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족생활교육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1). 건강가족의 주 내용

은 배려와 헌신, 감사와 애정, 긍정적 의사소통, 즐거운 시간의 공유, 정신적 안녕,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능력이 있다(유영주, 2001). 건강한 가족은 전반적으로 서로에게 잘 몰입이 되어 가족 활동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며 직업, 일이나 다른 어떤 급한 일도 가족의 상호작용이 우선이다. 또 가족원은 질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위기나 변화가 필요할 경우 변화하기 위한 능력,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 또한 건강한 가족은 긍정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건강한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가족원들은 서로 차이점과 상충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며 솔직하게 표현한다.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의견 차이는 받아들인다. 건강가족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 간 배려를 하며 감사함을 잘 표현한다. 건강한 가족의 강점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며 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원이 서로 다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간다(Pratt, 1976).

한부모가족들은 위기를 경험하고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며 가족해체 이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위 건강가족적 관점을 토대로 한부모가족의 강점을 강화하여 가족구성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술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부모로서 양육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3.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

부모로서 효능감은 부모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자녀가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과 과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기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1997). Bandura(1997)는 사회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부모효능감은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Johnston & Mash, 1989).

박정윤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 자녀양육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절한 감독과 조언을 하고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녀 연령과 발달단계 및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정윤, 2014). 또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있는 양육 태도를 보여 유아의 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Mondell & Tyler, 1981; Coleman & Karraker, 1998; 우희정외, 1994). 또한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잘 대처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주며 자율을 격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안지영, 2001). 반면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8). 부모효능감은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경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전인옥

외, 1999; 문혁준, 1999).

양육지식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이모아, 2010). 부모의 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때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을 지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게 한다(Miller, 1988).

한부모가족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문제에 자신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말하였다. 특히 사춘기자녀가 학교 친구와 싸움이 있거나, 자녀의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인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서현석, 2014). 이모아(2010)의 연구에서는 양육지식과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반면 서현석(2014)의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노력은 양부모 부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감당한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뒤떨어질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에게 한부모가족을 형성해 주었다는 미안함과 동시에 자녀로 인한 깊은 좌절과 학부모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서현석, 2014).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기효능감이 아주 강하게 자립의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이은희외, 2012), 정순임(2014)의 연

구에서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수준, 자녀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태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더 느꼈으며 양육태도에 따라 학교 적응능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감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은 주된 양육자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특별한 요구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를 의미한다(오혜경·정소영, 2003). 한부모가족이 당면하는 문제로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 과중되는 가사노동,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상의 문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죄책감, 등을 들 수 있는데 한쪽 부모가 양부모 역할을 해야한다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그래서 초기에는 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가 되거나 방임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변화된 역할에 적응해 간다. 부자가족의 경우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가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다. 여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비해 남성들은 성장하면서 가사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사춘기 여아를 둔 경우는 성문제나 여아를 위한 건전한 역할 모델이 부족하여 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유영주외, 2004).

한부모는 생계를 위해 직업에 전념하며 과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지

칠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자녀를 방치하거나 가정교육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긴장과 갈등문제를 유발한다. 그리고 가족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자녀들이 두려움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며 성장에 큰 위기를 겪음으로써 양육부담감은 더욱 가중화 된다(박성석외, 2009).

가족해체로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는 소득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mato, 1993).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에 비해 액수는 절대적으로 적지만 전체 소득액에 지출 비용이 높게 산출되고 있다. 즉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장혜경외, 2001; 여성가족부, 2012). 이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압력으로 인해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경제적인 불안감이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이는 정상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여 결국 청소년기 자녀가 적응하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Conger et al., 1992; Simons et al., 1996).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입소 우선권 등 부분적으로 제공을 받고 있다(김혜선외, 2010). 하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 경제적 부양자로서 역할을 전적으로 맡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자녀돌보기 역할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양육은 이들에게 절박한 문제로 직결된다. 현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배우자가 있을 때와 달리 경제활동으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녀와의 심리적 갈등도 커진다(김혜경외, 2010; 박성석외, 2009). 서현석의 연구(2014)에서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한부모는 죄의식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이거나 일관된 태도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치중하고 있어 한부모 여성들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의 연구 내 인터뷰내용에서는 한부모들이 아빠의 부재로 인해 아빠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져 이혼 전보다 자녀를 좀 더 단속하거나 엄하게 훈육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자녀가 사춘기에 가까운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부모참여의 어려움을 느끼고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서현석외, 2014).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은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신체, 정서, 사회적 양육부담에 비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에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이며 또 한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모자가족의 경우 이혼 전보다 모자녀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가까워져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 비교적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졌다(박성석외, 2009).

김소라(2014)의 연구에서도 모자가족에 비해 부모가족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

육을 통하여 부모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학교적응의 수준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정의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나타났다(Brady & Matthews, 2002).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그만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김혜선(2010)연구는 이혼한 한부모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질적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혼을 결정하면서 자녀양육 책임을 선택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모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녀 양육으로 인한 미취업 상태의 지속, 교육 및 직업경력의 단절 등으로 자녀양육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김혜선, 2010). 한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감당할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지니고 있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한부모 가족을 형성해 주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깊은 좌절감과 학부모로서 무력감을 보이기도 하며(서현석외, 2014),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신체화까지 경험하는데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체적으로도 소진을 경험한다. 특히 소화불량, 고혈압, 신경성 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한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roster, 2001).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결손가족, 불완전한 가족,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을 학교에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봐, 문제 있는 가족으로 볼까봐, 동정심 받기 싫어서, 무시받기 싫어 등의 사회적차원의 양육부담감 역시 크

게 나타났다(박영란, 1998; 김혜선, 2010, 서현석외 2014). 김혜선외 (2010)의 연구의 한부모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혼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자 창피함과 주눅이 들었고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눈치만 보았던 상황, 상황이 어렵지만 무시받거나 동정심 받기 싫은 양가 감정의 경험, 부모의 한쪽 부재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상황,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게 한 것 같다는 죄책감과 그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충 등이 잘 나타나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와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족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보다 위기상황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구적,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Rhodes, Ebert & Meyer, 1994; Arandell, 2001).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원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유형 중 도구적 지지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에게 부모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5.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부모는 자녀 발달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해 지식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얻어 부모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훈, 2006; 예서현, 2004; 조근진, 2010). 문성주(2010)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부모와 이수한 뒤 쉬고 있는 부모들과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여 학습할 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졌다.

황은숙(2008)은 총 12회기 부모교육을 18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한부모에 대한 교육은 다중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대상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가족지원서비스, 보육지원서비스 등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이들을 위한 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아닌 다차원적으로 접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00분씩 8회기로 8명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2시간씩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존감 향상을 위해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질을 향상시키며 일상생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 사회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도록 하고 효율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프로그램 초기에는 매우

거부적이고 갈등적이며 소극적이었으나 회기가 진행할수록 성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졌고 집단역동이 활발해졌으며 때로는 자조집단의 성원들끼리 의지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기가 지날수록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강해졌다. 전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증진되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은숙(2009)의 연구결과 한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한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더욱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것이 필요하다. 여성 한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지만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나 창업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강기정, 2005).

김경신(1997)의 연구에서는 광주와 전라남도 모자복지기관 종사자와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부모 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적 심리 안정 및 상담 교육이 주로 많았고 연 1-2회 꾸준히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유형에는 모 혼자 교육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내용은 가족관계, 상담, 심리 순으로 받았으며 적정 기관으로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평가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 하여 종사자보다는 만족도가 낮았다. 교육 필요성에는 기술직업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족 가족생활 교육 실태분석 결과 교육담당자와 대상자 모두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내용에 대한 욕구는 대상자와 담당자와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교육주제로는 곧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실천

적이고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욕구는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적인 교육보다는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에는 가족관계 뿐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소라(2014)의 연구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를 증진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훈련, 관계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가 증진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김소라, 2014).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절한 감독과 조언을 하고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정운, 2014). 한부모가족의 적응에는 교육지원이나 지역사회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ennedy, 1985). 따라서 한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의 발달단계와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모두가 도모해야한다.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또한 가족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Booth & Amato, 1991) 대상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가족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이 실시되어

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한부모의 양육부담감과 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감과 부모효능감에 따른 부모교육 욕구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1.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2.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한부모가족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1) 예비조사

본 연구를 실시하기전 기존 연구문헌을 기초로 만들어진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질문지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3인에게 액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북구 지역 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중복되는 표현,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고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본조사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부담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한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한부모 250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한부모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기관, 동사무소, 지역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 배포되었고 수거된 설문지는 223부였으나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0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사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 대상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

(N=205)

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 별 (가구주)	남자	35	17.1
	여자	170	82.9
가족형태	부자가정	35	17.2
	모자가정	169	82.8
연 령	30세이상 - 40세미만	41	20.0
	40세이상 - 50세미만	112	54.6
	50세이상 - 60세미만	52	25.4
학 력	중학교 졸업	14	7.1
	고등학교 졸업	124	63.3
	대학교 졸업	58	29.6
직 업	생산기능직(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사 등)	23	11.3
	서비스직(음식업, 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인 등)	59	28.9
	판매직(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 관리자, 판매원 등)	20	9.8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30	14.6
	전문직(의사, 교사,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판사, 변호사, 연구원 등)	12	5.9
	무직	40	19.6
	기타	20	9.8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78	38.4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79	38.9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5	12.3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19	9.4
	400만원 이상	2	1.0
한부모가족 형성원인	이혼	146	74.5
	사별	50	25.5
자녀 수	1명	60	29.4
	2명	107	52.5
	3명 이상	37	18.1
조력자 유무	있다	60	30.0
	없다	140	70.0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82.9%(170)명, 남성이 17.1%(35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40세이상 50세 미만인 54.6%(112명)로 가장 많았고 50세이상 60세미만 25.4%(52명), 30세이상 40세미만 20.0%(4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3.3%(124명), 대학교 졸업 29.6%(58명), 중학교 졸업 7.1%(14명)를 차지하며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들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28.9%(5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 순으로 무직 19.6%(40명), 사무직 14.6%(30명), 생산기능직 11.3%(23명), 판매직 9.8%(20명)으로 나타났다. 참여대상자의 가계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8.4%(78명),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8.9%(79명),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2.3%(25명),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9.4%(19명), '400만원이상' 1.0%(2명)으로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의 약 77%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형성원인은 이혼이 74.5%(146명), 사별 25.5%(50명)로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수는 1명 29.4%(60명), 2명 52.5%(107명), 3명이상 18.1%(37명)으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유무로는 '있다'는 30.0%(60명), '없다'의 비율이 70.0%(140명), 한부모 대부분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수정의 및 측정도구

1)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척도에 박주희(2014)의 연구에서 부모효능감 측정 도구 문항 일부를 추가하여 총 19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9점에서 95점이다. 부정적인 문항 4, 5, 6, 9, 10, 13, 14, 16, 18, 19번은 역으로 채점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8이다.

〈표 3〉 부모효능감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부모 효능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1. 2. 3.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15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4. 5. 6. 16	4
	전체		19

2) 양육부담감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은 부모 또는 주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의미한다(엄미선외, 2006). 양육부담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에 대해 묻는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능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부모교육에 대한 현황 및 욕구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주경(1997)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보미(2013)가 재구성한 척도를 대상을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교육 욕구 측정에 대한 척도는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 부모교육 실시현황,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여부, 미참석시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 적절한 교육 장소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교육 내용에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정인오, 이은경, 윤명선, 전은희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변경화(1999)가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한부모가족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삭제하여 재구성하였다. 5개의 하위영역은 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 ②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 ③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도영역 ④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 ⑤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하위영역에 한부모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와 활용 방법, 한부모가족 가장의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내용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척도의 각 항목별 신뢰도계수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 Cronbach α 는 .76, ‘자녀의 사회성 지도’ Cronbach α 는 .79,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도’ Cronbach α 는 .75,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Cronbach α 는 .79, ‘자녀의 습관 및 행동수정 지도’ Cronbach α 는 .76 이었다.

〈표 4〉 부모교육내용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교육 내용	문항 수	문항번호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	5	1, 4, 13, 21, 23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	4	2, 10, 17, 22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도영역	5	3, 7, 11, 14, 18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	5	5, 8, 12, 15, 19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6	6, 9, 16, 20, 24, 25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와 활용에 관한 내용	1	26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 방법	1	27
전체	27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Version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현황 및 부모교육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한부모가족의 한부모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및 양육부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ANOVA 분석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
- 4) 한부모의 부모효능감,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먼저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N	M	SD
부모효능감	204	58.99	7.84
양육부담감	205	4.09	.93

한부모의 205명을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부모효능감은 1명의 결측지로 204명의 측정도구를 분석하였다. 부모효능감 총 점수의 평균은 점수가 가능한 범위인 19점에서 95점 중 평균 58.99, 표준편차 7.84로 대체적으로 부모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양육부담감은 평균 4.09, 표준편차 .93로 5점 척도에서 평균점수가 4점이 넘는 것으로 한부모들의 양육부담감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에 관한 분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 효능감	55점 미만	47	23.0
	55점이상 - 65점미만	115	56.4
	65점이상 - 75점미만	35	17.2
	75점이상 - 85점미만	6	2.9
	85점이상	1	.5
	합계	204	100
양육 부담감	전혀 그렇지 않다	3	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2.9
	반반이다	45	22.0
	대체로 그렇다	66	32.2
	정말로 그렇다	85	41.5
	합계	205	100

분석결과 한부모들의 부모효능감 점수가 55점미만이 23.0%(47명), 55점이상 65점미만이 56.4%(115명), 65점이상 75점미만 17.2%(35명), 75점이상 85점미만 2.9%(6명), 85점이상 .5%(1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의 부모효능감은 대체적으로 65점 미만의 계급구간에 대상자의 약 80%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한부모들의 부모효능감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의 양육부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5%(3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6명), ‘반반이다’ 22.0%(45명), ‘대체로 그렇다’ 32.2%(66명), ‘정말로 그렇다’ 41.5%(85명)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감은 평균점수가 가능한 총점 5점 중 4.09로 매우 높았다. 응답분항 중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약 74%로 한부모 대다수가 양육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1) 부모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의 현황과 부모교육에 관한 욕구를 살펴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과 부모교육 참여 횟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부모교육 참석여부

		빈도(명)	비율(%)
참석여부	있다	86	42.2
	없다	118	57.8
	합계	204	100
참석횟수	1회	23	51.1
	2회	14	31.1
	3회 이상	8	17.8
	합계	45	100

한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석여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2.2%(86명),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은 57.8%(118명)으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한부모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들 중 교육 참여 횟수는 1회 참석 51.1%(23명), 2회 참석 31.1%(14명), 3회이상 참석 17.8%(8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석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한부모들 중 반 이상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참여하였다더라도 1회 참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빈도표를 보았을 때 한부모들 중 절반 이상이 부모교육에 참여한적 없거나 참여하였을 경우 '1회 참여'로 부모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 참여한 부모교육 내용 분석

	빈도(명)	비율(%)
육아를 위한 정보	10	6.99
자녀의 건강에 대한 내용	5	3.49
자녀의 바람직한 생활지도	21	14.68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	35	24.47
부모로서 자질 향상에 대한 내용	12	8.39
부모의 정신건강, 교양증진을 위한 내용	28	19.58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	32	22.37

한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 내용으로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 24.47%(35명)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 22.37%(32명), 다음은 ‘부모의 정신건강, 교양증진을 위한 내용’ 19.58%(28명), ‘자녀의 바람직한 생활지도’ 14.68%(21명), ‘부모로서 자질 향상에 대한내용’ 8.39%(11명), ‘육아를 위한 정보’ 6.99%(10명), ‘자녀의 건강에 대한 정보’ 3.49%(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한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양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자녀의 학습지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는 비슷하다는 결과가 참여하였던 교육내용 비율에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다음 <표 9>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후 교육내용의 도움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표이다. 참여한 부모교육의 도움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35.6%(31명),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55.2%(48명),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9.2%(8명)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 가운데 약 9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결과 부모교육이 한부모들에게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 부모교육의 도움여부

		빈도(명)	비율(%)
부모교육의 도움여부	매우 도움이 되었다	31	35.6
	조금 도움이 되었다	48	55.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9.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다음은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한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부모교육 미참석 이유

		빈도(명)	비율(%)
부모교육 미참석 여부	들어는 보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6	18.9
	시간,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88	64.2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들어보지 못해서)	21	15.3
	기타	2	1.5

부모교육을 경험하지 않았던 한부모들의 미참석한 이유는 ‘들어는 보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8.9%(26명), ‘시간,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64.2%(88명),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들어보지 못해서)' 15.3%(21명) 으로 나타났다. '시간,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응답률이 64.2%(8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들어는 보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18.9%(26명),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들어보지 못해서)'가 15.3%(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빈도분석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한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와 일치한 결과이다(황은숙, 2007). 이는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모두 혼자서 수행해야 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부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2) 한부모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

다음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부모교육에 대한 참석 의지에 대해 빈도분석한 결과표이다.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

		빈도(명)	비율(%)
특화된 부모교육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00	49.0
	조금 필요하다	83	40.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	9.3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0
부모교육 참석 의지	참여한다	125	61.3
	참여하지 않는다	22	10.8
	교육주제와 내용에 따라 결정	57	27.9

조사대상자에게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필요하다'는 49.0%(100명), '조금필요하다'는 40.7%(83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9.3%(19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2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와 '조금 필요하다'가 연구대상자 전체 중 약 90%로 연구대상자 한부모들의 대다수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참석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참여한다'에 61.3%(125명), '참여하지 않는다' 10.8%(22명),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 27.9%(57명)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로 높게 나타났다. 즉 위 분석 결과표를 보았을 때 한부모들은 한부모가족에 맞는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참여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의 응답률도 높은 것을 보아 한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교육을 실시 할 경우 교육 방법에 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부모교육 운영방법에 관한 욕구

		빈도(명)	비율(%)
교육 운영방법	오프라인교육	110	53.7
	온라인교육	31	15.1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 함께 적용	60	29.9
교육 운영장소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20	9.9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	29	14.3
	직장	11	5.4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141	69.5
	기타	2	1.0
교육 운영횟수	주 1회	9	4.5
	1달 2회	23	11.6
	1달 1회	40	20.1
	2달 1회	21	10.6
	1년 2회	78	39.2
	비정기적 프로그램	26	13.1
	기타	2	1.0

부모교육 운영방법에 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교육을 53.7%(110명)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29.9%(60명), 온라인교육 15.1%(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장소로는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가 전체 응답의 69.5%(14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 14.3%(29명),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9.9%(20명), 직장 5.4%(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운영횟수는 1년에 2회가 37.9%(80명), 1달 1회 20.4%(43명), 비정기적인 프로그램 12.3%(26명), 순으로 나타났다.

3.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차이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을 나누어 각각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페이지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나왔는지 살펴보면 t검증 결과 $t=-2.40$, $p<.05$ 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은 부모효능감이 평균 56.60점($SD=8.08$), 여성은 부모효능감이 평균 59.48점($SD=6.07$)으로 여성 한부모가 남성 한부모보다 부모효능감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더불어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부모효능감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자가족은 부모효능감이 평균 56.60점($SD=6.07$), 모자가족은 평균 59.53점($SD=8.08$)으로 역시 모자가족이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다음으로 한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7.794$, $p<.01$ 로 유의미하였다.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일 경우 부모효능감 점수가 평균 59.13점($SD=7.2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졸업'은 부모효능감 점수 57.70점($SD=7.35$), '중학교졸업'

이 54.5점 (SD=11.14)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부모의 나이와 한부모가족 사유,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부모효능감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성별, 가족형태, 한부모의 최종학력으로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그리고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관련변수		부모효능감	
		M(SD)	F/t
성별	남자	56.60(8.08)	-2.40*
	여자	59.48(6.07)	
나이	30세이상-40세미만	57.43(8.96)	1.182
	40세이상-50세미만	59.63(7.34)	
	50세이상-60세미만	58.84(7.91)	
가족 형태	부자가족	56.60(6.07)	2.442*
	모자가족	59.53(8.08)	
최종 학력	중학교졸업	54.5(11.14)	7.794**
	고등학교졸업	57.70(7.35)	
	대학교졸업	59.13(7.28)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58.63(7.48)	1.287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57.08(7.40)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56.20(8.47)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60.36(7.90)	
한부모가족 사유	이혼	57.63(7.38)	.004
	사별	58.06(8.05)	
자녀수	1명	59.46(7.80)	2.444
	2명	59.62(8.11)	
	3명이상	56.43(6.84)	

P* < .05, P** < .01, P*** < .001

2)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및 일원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

관련변수	양육부담감		
	M(SD)	F/t	
성별	남자	3.74(.74)	-2.454*
	여자	4.16(.95)	
나이	30세이상-40세미만	3.71(1.14)	4.479*
	40세이상-50세미만	4.19(.88)	
	50세이상-60세미만	4.19(.79)	
가족 형태	부자가족	3.74(.74)	2.423*
	모자가족	4.16(.96)	
최종 학력	중학교졸업	4.71(.61)	4.885**
	고등학교졸업	4.18(.84)	
	대학교졸업	3.90(1.10)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4.33(.94)	3.031*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06(.9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89(.83)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58(.96)	
한부모가족 사유	400만원이상	4.00(.00)	.927
	이혼	4.14(.95)	
	사별	4.00(.92)	
	1명	4.17(.97)	
자녀수	2명	3.93(.95)	4.251*
	3명이상	4.43(.72)	

P* <.05, P**<.01, p***<.001

성별 및 가족형태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t=-2.454, p<.05$, 가족형태는 $t=2.423, p<.05$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일 경우 양육부담감 점수가 평균 3.74점($SD=.74$), 여자는 양육부담감 점수 평균 4.16점($SD=.9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부자가족일 경우 양육부담감이 평균 3.74($SD=.74$), 모자가족일 경우는 양육부담감이 평균 4.16($SD=.96$)으로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양육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부모의 나이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479,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부모의 나이가 '30세이상 40세미만'은 양육부담감이 평균 3.71점($SD=1.14$), '40세이상 50세미만'은 평균 4.19점($SD=.88$), '50세이상 60세미만'의 양육부담감 평균 점수도 4.19($SD=.79$)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4.885, p<.01$ 로 집단간의 양육부담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양육부담감 평균 점수 4.71($SD=.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은 4.18점($SD=.84$)으로 세 변인 중 중간 수치가 나왔으며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이 양육부담감 평균점수가 3.90($SD=1.10$)으로 가장 낮았다. 즉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031,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부모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미만'일 경우 양육부담감은 평균 4.33($SD=.94$),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은 양육부담감 평균 4.06($SD=.92$),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은 양육부담감 평균 3.89($SD=.83$),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의 양육부담감은 평균 3.58($SD=.96$), '400만원초과'의 양육부담감 평균점수는

4.00(SD=.00)으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족의 사유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수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는 $F=4.251,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일 경우 한부모의 양육부담감 평균 점수는 4.17(SD=.97), 자녀가 2명일 경우 양육부담감 점수 평균 3.93(SD=.95),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양육부담감 점수는 평균 4.43(SD=.72)로 자녀가 1명일 경우 양육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끼며 다음순으로 3명이상, 2명일 경우 상대적으로 양육부담감을 적게 느꼈다.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한 결과 한부모의 가구주의 성별, 최종학력에 따라 부모효능감이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부모의 성별, 나이,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양육부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추가변인 순은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2단계는 부모효능감, 3단계 양육부담감 순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가족형태, 한부모가족 사유는 명목척도로 각 1과 0으로 더미 변환(dummy variable)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교육내용의 7가지의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전체 교육내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장 <표 15>와 같다.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부모교육 내용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 1에서는 한부모의 부모교육 교육내용의 욕구에 대해 17.5%(F=7.583)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모형 1에 부모효능감을 추가한 것으로 모형 1에 비해 2.2% 더 설명한 19.7%(F=7.272)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20.7%(F=6.603)의 설명력을 갖는다. 결과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중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모형 1에서 $\beta = -.184, p < .05 (t = -2.619)$ 에서 부모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4.671	.000	-	-	1.075	.284	-	-	1.761	.080	-
가족형태	.060	.743	.459	1.394	.115	1.388	.167	1.535	.099	1.190	.236	1.560
최종학력	-.184 ^f	-2.619	.010	1.075	-.242 ^e	-3.254	.001	1.225	0.255 ^g	-3.415	.001	1.241
월평균소득	.259 ^g	3.084	.002	1.534	.221 ^e	2.604	.010	1.600	.212 ^e	2.499	.013	1.608
자녀의 수	.198 ^g	2.824	.005	1.068	.212 ^g	3.041	.003	1.076	.220 ^g	3.154	.002	1.082
한부모가족사유	.033	.448	.655	1.214	.036	.487	.627	1.214	.040	.537	.592	1.215
부모효능감					.167 ^e	2.212	.028	1.263	.146	1.903	.059	1.308
양육부담감									0.107	-1.537	.134	1.130
R ²	.175				.197				.207			
수정된 R ²	.152				.170				.176			
F	7.583				7.272				6.603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최종학력 변인은 모형 2에서 $\beta = -.242$, $p < .01$ ($t = -3.254$)로 유의수준이 모형 1보다 높아졌으며 모형 3에서도 여전히 $\beta = 0.255$, $p < .01$ ($t = -3.415$)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가 적었으나 모형 3에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부모의 월평균소득은 모형 1에서는 $\beta = .259$, $p < .01$ ($t = 3.084$), 모형 2단계에는 $\beta = .221$, $p < .05$ ($t = 2.604$), 모형 3에서는 $\beta = .212$, $p < .05$ ($t = 2.499$)로 한부모의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에 모형 1, 2, 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

족의 자녀의 수 변인은 모형 1에서는 $\beta=.198, p<.01(t=2.824)$, 모형 2에서는 $\beta=.212, p<.01(t=3.041)$, 모형 3은 $\beta=.220, p<.01(t=3.154)$ 로 모형 1, 2, 3 모두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은 모형 2에서 $\beta=.167, p<.05(t=2.212)$ 로 한부모의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3에서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결과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반면 모형 3에서 추가한 양육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 <표 16>은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의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6>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4.319	.000	-	-	1.373	.172	-	-	3.285	.060	-
가족형태	.032	.395	.693	1.394	.073	.848	.398	1.535	.058	1.896	.501	1.560
최종학력	-.122	-1.684	.094	1.075	-.163 [†]	-2.125	.035	1.225	-.175 [†]	.674	.025	1.241
월평균소득	.228 ^{***}	2.642	.009	1.534	.201 [*]	2.283	.024	1.600	.192 [*]	-2.266	.030	1.608
자녀의 수	.204 ^{***}	2.832	.005	1.068	.214 ^{***}	2.969	.003	1.076	.221 ^{***}	2.187	.003	1.082
한부모가족사유	.012	.152	.879	1.214	.014	.177	.860	1.214	.017	3.065	.826	1.215
부모효능감					.121	1.548	.123	1.263	.101	.220	.203	1.308
양육부담감									-.098	1.279	.185	1.130
R ²	.130				.141				.150			
수정된 R ²	.105				.112				.116			
F	5.338				4.882				4.456			

p* <.05, p**<.01, p***<.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은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였는데 한부모의 월평균소득이 $\beta = .228, p < .01 (t = 2.642)$, 자녀의 수는 $\beta = .204, p < .01 (t = 2.832)$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은 한부모의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13.0% 설명하고 있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모형 2에서는 $\beta = -1.63, p < .05 (t = -2.125)$ 으로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월평균소득 $\beta = .201, p < .05 (t = 2.283)$, 자녀의수 $\beta = .214, p < .01 (t = 2.969)$ 로 모형 2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해 1.1%가 증가한 14.1% 설명하였다.

모형 3은 양육부담감을 추가한 것으로 여전히 최종학력 $\beta = 0.175, p < .05 (t = .674)$, 월평균소득 $\beta = .192, p < .05 (t = -2.266)$, 자녀의 수 $\beta = .221, p < .01 (t = 2.187)$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2에 비해서 .9% 증가한 15% 설명하였다. 반면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마지막으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7>은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7〉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4.038	.000	-	-	.578	.564	-	-	1.346	.180	-
가족형태	.120	1.496	.136	1.304	.180 [*]	2.160	.032	1.535	.164	1.961	.051	1.560
최종학력	-.164 [*]	-2.321	.021	1.075	-.225 [*]	-3.027	.003	1.225	-.238 [*]	-3.185	.002	1.241
월평균소득	.217 [*]	2.568	.011	1.534	.176 [*]	2.068	.040	1.600	.167	1.964	.051	1.608
자녀의 수	.185 ^{**}	2.630	.009	1.088	.200 ^{**}	2.863	.005	1.076	.207 ^{**}	2.974	.003	1.082
한부모가족사유	.048	.641	.522	1.214	.051	.686	.494	1.214	.054	.736	.463	1.215
부모효능감					.178 [*]	2.358	.019	1.263	.157 [*]	2.050	.042	1.308
양육부담감									-.106	-1.486	.139	1.130
R ²	.169				.194				.204			
수정된 R ²	.146				.167				.173			
F	7.284				7.152				6.487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에서는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164, p < .05 (t = -2.321)$, 월평균소득 $\beta = .217, p < .05 (t = 2.568)$, 자녀의 수 $\beta = .185, p < .01 (t = 2.630)$ 으로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의 부모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은 한부모의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16.9% 설명하고 있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여전히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225, p < .01 (t = -3.027)$, 월평균소득 $\beta = .176, p < .05 (t = 2.068)$, 자녀의 수 $\beta = .200, p < .01 (t = 2.863)$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부모효능감은 $\beta = .178, p < .05 (t = 2.358)$ 로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19.4% 설명력을 지닌다.

모형 3은 20.4%의 설명력을 갖으며 양육부담감을 추가한 것으로 모형 1과 모형 2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모형 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한부모의 최종학력은 $\beta = -1.282, p < .01 (t = -3.185)$, 자녀의 수는 $\beta = .301, p < .01 (t = 2.974)$, 부모효능감 $\beta = .157, p < .05 (t = 2.050)$ 으로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2에서 부모효능감을 추가한 결과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가 낮아지며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 3에서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결과 월평균소득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는 낮아지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8>은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8〉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5.573	.000	-	-	2.078	.039	-	-	2.256	.025	-
가족형태	.013	.165	.869	1.394	.054	.650	.517	1.535	.044	.520	.604	1.560
최종학력	-.223*	-3.163	.002	1.075	-.265**	-3.542	.001	1.225	-.273**	-3.630	.000	1.241
월평균소득	.273**	3.243	.001	1.534	.245**	2.862	.005	1.600	.239**	2.784	.006	1.608
자녀의 수	.191**	2.727	.007	1.038	.202**	2.872	.005	1.076	.207**	2.936	.004	1.082
한부모가족사유	.028	.373	.710	1.214	.030	.399	.690	1.214	.032	.431	.667	1.215
부모효능감					.123	1.617	.108	1.263	.109	1.407	.161	1.308
양육부담감									-.071	-.981	.328	1.130
R ²	.174				.186				.190			
수정된 R ²	.151				.158				.158			
F	7.535				6.772				5.941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에서는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7.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모형 1에 1.2% 설명력이 증가하여 18.6%, 모형 3은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하여 총 19.0% 설명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각 모형의 한부모의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변인 중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223, p < .01 (t = -3.163)$, 월평균소득 $\beta = .273, p < .01 (t = 3.243)$, 자녀의 수 $\beta = .191, p < .01 (t = 2.72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여전히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265, p < .01 (t = -3.542)$, 월평균소득 $\beta = .245, p < .01 (t = 2.862)$, 자녀의 수 $\beta = .202, p < .01 (t = 2.872)$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효능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은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결과 여전히 한부모의 최종학력은 $\beta = -.273, p < .001 (t = -3.630)$, 월평균소득 $\beta = .239, p < .01 (t = 2.784)$ 자녀의 수는 $\beta = .207, p < .01 (t = 2.936)$ 으로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욕구는 낮으며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 <표 19>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9>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4.820	.000	-	-	1.770	.078	-	-	1.757	.081	-
가족형태	-.003	-.036	.971	1.394	.034	.399	.691	1.535	.027	.324	.747	1.560
최종학력	0.205 ^{***}	-2.902	.004	1.075	-.242 ^{**}	-3.226	.001	1.225	-.247 ^{**}	-3.282	.001	1.241
월평균소득	.251 ^{***}	2.971	.003	1.534	.226 ^{***}	2.629	.009	1.600	.222 ^{**}	2.577	.011	1.608
자녀의 수	.247 ^{***}	3.507	.001	1.068	.255 ^{***}	3.631	.000	1.076	.259 ^{***}	3.655	.000	1.082
한부모가족사유	-.039	-.524	.601	1.214	-.038	-.504	.615	1.214	-.036	-.484	.629	1.215
부모효능감					.109	1.427	.155	1.263	.101	1.295	.197	1.308
양육부담감									-.041	-.561	.575	1.130
R ²	.170				.179				.181			
수정된 R ²	.146				.151				.148			
F	7.316				6.471				5.571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에서는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205, p < .01 (t = -2.902)$, 월평균 소득 $\beta = .251, p < .01 (t = 2.971)$, 자녀의 수 $\beta = .247, p < .01 (t = 3.507)$ 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1은 17.0%의 설명력을 갖는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여전히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242, p < .01 (t = -3.226)$, 월평균소득 $\beta = .226, p < .01 (t = 2.629)$, 자녀

의 수 $\beta = .256, p < .001 (t = 3.631)$ 이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2의 설명력은 모형1에 .9% 증가한 17.9%로 나타났다.

모형3은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모형1과 모형2와 같이 최종학력 $\beta = -.247, p < .01 (t = -3.262)$, 월평균소득 $\beta = .222, p < .05 (t = 2.577)$, 자녀의 수 $\beta = .259, p < .001 (t = 3.655)$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의 설명력은 19.1%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교육욕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욕구가 낮으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교육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0>은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20〉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3.804	.000	-	-	0.288	.774	-	-	1.154	.250	-
가족형태	.136	1.707	.089	1.394	.217	2.676	.008	1.535	.193	2.389	.018	1.560
최종학력	0.201	-2.884	.004	1.075	0.285	-3.932	.000	1.225	-.304	-4.222	.000	1.241
월평균소득	.231	2.771	.006	1.534	.176	2.117	.036	1.600	.162	1.971	.050	1.608
자녀의 수	.130	1.873	.063	1.088	.150	2.211	.028	1.076	.162	2.406	.017	1.082
한부모가족사유	.099	1.331	.185	1.214	.102	1.419	.158	1.214	.108	1.512	.132	1.215
부모효능감					.244	3.305	.001	1.263	.211	2.855	.005	1.308
양육부담감									-.162	-2.330	.020	1.130
R ²	.188				.235				.258			
수정된 R ²	.166				.210				.229			
F	8.307				9.127				8.811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에서는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의 최종학력 $\beta = -.201, p < .01 (t = -2.884)$, 월평균 소득 $\beta = .231, p < .01 (t = 2.771)$ 로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행동 수정 및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욕구는 낮아지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은 18.8%를 설명한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교육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형 1에서 영향을 미친 변인들에 가족형태 β

=.217, $p < .01$ ($t=2.676$), 자녀의 수 $\beta=.150$, $p < .05$ ($t=2.211$), 부모효능감 $\beta=.244$, $p < .01$ ($t=3.305$)로 교육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형태가 모자가족일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았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수정 및 지도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는 낮아지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및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설명력은 23.5%를 갖는다.

모형 3은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모형 2에서 영향력을 보였던 가족형태 $\beta=.193$, $p < .05$ ($t=2.389$), 최종학력 $\beta=-.304$, $p < .001$ ($t=-4.222$), 자녀의 수 $\beta=.162$, $p < .05$ ($t=2.406$), 부모효능감 $\beta=.211$, $p < .01$ ($t=2.855$)로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소득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추가한 양육부담감은 $\beta=-.162$, $p < .05$ ($t=-2.350$)으로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및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가족일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및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및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1>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대한 부모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2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3.274	.001	-	-	1.342	.181	-	-	1.650	.101	-
가족형태	-.080	-.949	.344	1.394	-.059	-.665	.507	1.535	-.069	-.782	.436	1.560
최종학력	-.009	-.127	.899	1.075	-.031	-.394	.694	1.225	-.040	-.500	.618	1.241
월평균소득	.283	3.215	.002	1.534	.269	2.985	.003	1.600	.262	2.909	.004	1.608
자녀의 수	.180	2.452	.015	1.088	.185	2.510	.013	1.076	.190	2.573	.011	1.082
한부모가족 사유	-.063	-.799	.425	1.214	-.062	-.786	.433	1.214	-.059	-.754	.452	1.215
부모효능감					.063	.784	.434	1.263	.048	.593	.554	1.308
양육부담감									-.073	-.961	.338	1.130
R ²	.096				.099				.104			
수정된 R ²	.071				.069				.068			
F	3.798				3.261				2.926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은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9.6%의 설명력을 갖으며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9.9%, 모형 3은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10.4%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위계적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 월평균 소득과 자녀의 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욕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beta=.262, p<.01(t=2.909)$, 자녀의 수 $\beta=.190, p<.05(t=2.573)$ 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 <표 22>는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22>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교육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상수)	-	2.312	.022	-	-	-.324	.746	-	-	1.003	.317	-
가족형태	.042	.510	.611	1.394	.098	1.149	.252	1.535	.075	.879	.381	1.560
최종학력	-.048	-.663	.508	1.075	-.106	-1.355	.168	1.225	-.124	-1.632	.104	1.241
월평균소득	.256**	2.967	.003	1.534	.217*	2.495	.013	1.600	.204*	2.361	.019	1.608
자녀의 수	.128	1.775	.078	1.038	.141*	1.979	.049	1.076	.153*	2.151	.033	1.082
한부모가족사유	.089	1.163	.246	1.214	.092	1.208	.229	1.214	.097	1.289	.199	1.215
부모효능감					.168*	2.166	.032	1.263	.137	1.754	.081	1.308
양육부담감									-.155*	-2.145	.033	1.130
R ²	.134				.156				.177			
수정된 R ²	.109				.127				.145			
F	5.521				5.477				5.447			

p* < .05, p** < .01, p*** < .001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 중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VIF 값이 10미만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 1은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한부모의 월평균소득 변인이 $\beta=.256, p<.01(t=2.967)$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은 13.4%를 설명한다.

모형 2는 부모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월평균소득 $\beta = .217, p < .013 (t = 2.495)$, 자녀의 수 $\beta = .141, p < .05 (t = 1.979)$, 부모효능감 $\beta = .168, p < .05 (t = 2.166)$ 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보다 2.2% 증가한 15.5%이다.

모형 3은 양육부담감 변인을 추가한 결과 월평균소득 $\beta = .204, p < .05 (t = 2.361)$, 자녀의 수 $\beta = .153, p < .05 (t = 2.151)$, 양육부담감 $\beta = -.155, p < .05 (t = -2.1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교육 욕구가 높으며 양육부담감이 적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모형 3은 17.7%를 설명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총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0부 중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0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로 현재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의 일반적인 경향 및 부모교육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부모의 부모효능감, 양육부담감이 부모교육 교육내용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부모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두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검증, ANOVA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부모효능감은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양육부담감은 높은 평균점으로 많은 한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효능감은 95점 만점에 평균 58.99점으로 '55점 미만'이 23.0%, '55점이상 65점미만' 56.4%로 연구대상자의 약 80%가 65점 미만의 계급구간에 속하였다. 양육부담감은 5점 만점에 평균 4.09로 한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자녀양육에 부담감을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에 '정말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1.5%,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2.2%로 연구대상자의 약 74%가 양육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위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3)와 기존의 선행연구 김혜선(2010), 서현석(2014), 유영주(2004), 엄미선(2006), 장혜경(2001) 등의 연구에서 나온 한부모의 낮은 부모효능감과 높은 양육부담감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3)에서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지원방식이 ‘경제적지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경제적지원이 가장 필요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해 소득공제,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홀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모두 책임져야하는 한부모에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의 현황 및 욕구를 분석한 결과 부모교육을 참여한 적이 있는 한부모는 42.2%, 경험이 없는 한부모는 57.8%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하였더라도 51.1%가 1회 참여를 한 것으로 보아 한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참여한 부모교육 내용에는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24.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이 22.37%, ‘부모의 정신건강, 교양증진을 위한 내용’이 19.58%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이 참여한 부모교육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의 실제 도움여부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35.6%, ‘조금 도움이 되었다’ 55.2%로 부모교육이 한부모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교육에 참석한적이 없는 한부모들의 미참석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64.2%, ‘들어는 보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18.9%,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5.3%로 나타났다.

다. 이는 황은숙(2007)의 연구에서 한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 이유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에게 특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90%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화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한다'는 60.1%,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가 28.4%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한부모들의 한부모가족에 특화된 부모교육의 욕구는 매우 높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과 주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부모가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모두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교육'이 53.7%,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29.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횟수는 1년에 2회(39.2%), 1달에 1회(20.1%)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장소는 약 70%가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단체를 선택하였다. 위 의 선호하는 교육장소로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비율이 높게 나온 결과는 선행연구 황은숙(2007), 최경희(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약 70%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이용이 높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선호하는 교육장소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들의 부모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한부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이 유연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육 미참석 이유로 '들어는 보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기존에 교육기관 혹은 여러 지역사회단체 및 복

지기관에서 실시되었던 부모교육에 대해 불만족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을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및 양육부담감을 살펴본 결과 우선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 부모효능감 평균 점수가 56.60점, 여성일 경우 부모효능감 평균 점수가 59.48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한부모의 최종학력도 분석결과 '중학교졸업'이 부모효능감 평균점수 54.5점, '고등학교졸업'은 부모효능감 평균점수 57.70점, '대학교졸업'은 부모효능감 평균점수 59.13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의 성별과 나이, 가족형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양육부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양육부담감 점수가 높았으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남성이 가구주일 경우 월 소득이 높아 여성이 가구주일 경우 보다 양육부담감을 비교적 덜 느끼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로 하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부모들의 성별, 월평균 소득에 따라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상이하다. 특히 한부모의 성별은 부모교육에서 원하는 교육내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은 가사일과 자녀관계 형성에 어려워한다. 따라서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에 따른 특화된 부모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육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성장 발달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육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 자녀의 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육구가 높았다.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의 교육육구는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수, 부모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월평균소득과 부모효능감은 높을수록, 자녀의 수는 많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에 대한 교육육구가 높았다.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영역과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육구 역시 한부모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부모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한부모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영역 및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육구가 높았다.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육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모효능감을 투입한 모형 2에서 가족형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 부모효능감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형태가 모자가족일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영역에 대한 부모교육 육구가 높았다. 양육부담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가족형태, 최종학력, 자녀의 수, 부모효능감, 양육부담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모자가족일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양육부담감이 낮을수록 자녀의 습관 행동 수정 및 지도 영역에 대

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았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부모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평균소득과 자녀의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높을수록, 자녀의 수는 많을수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보에 대한 교육욕구는 연구대상자 중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변인간의 영향력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2에서는 한부모의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 부모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형 3에서는 부모효능감이 유의하지 않고 양육부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모형 2는 한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 3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양육부담감이 낮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에 관한 부모교육 욕구가 높았다.

위의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종합적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교육 욕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부모교육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부모교육 욕구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부모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는 하위 영역별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모효능감, 양육부담감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부모들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모교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부모의 교육내용에 관한 욕구

연구 결과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한부모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부모교육 욕구분석을 한다면 더욱 유용하고 의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표집대상이 일반적 특성이 비슷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는 다양한 특성의 연구대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양상이 다양하여 한부모가족이 부자가족인지 모자가족인지에 따라 혹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에 따라, 가정의 경제수준, 조력자의 유무, 자녀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그들의 욕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부담감을 5점 척도로 1문항으로 측정하여 양육부담감 측정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양육부담감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욕구에 대해 연구할 경우 측정도구를 보완한다면 더욱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2005).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9), 15-26.
- 구차순(2002). 한부모가족의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 김소라(2014). 한부모가족의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2014).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 - 가구주의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143-160
- 김종훈(2006).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선·김은하(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6권 1호, 219-242
- 문성주(2010).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 박선환·박숙희·이주희·정미경·김혜숙(2008). 정신건강론. 양서원.
- 박성석·오정아·이영주·최경화·최금해(2009). 가족복지론. 양서원.
- 박정윤·원아름(2014).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21-141.
- 박주희(2014).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rch. 52(4), 415-427

- 서현석·전미정·도유록(2014). 한부모 가족의 '학부모참여' 실태와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부모 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181-201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엄미선·전동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이모아(2010).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참여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장정미(2009). 임신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51-273
- 이은희·최광선(2012).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7), 2963-2990
- 이재철(1994).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학교적응도 및 개인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오혜경·정소영(2003). 학령기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신정출판사.
- 우희정·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 예서현(2004). 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효능감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2001). 여성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정책자료.
- 전유진(2006).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모·부자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미(2013).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현황 및 요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임(2014).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 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조근진(2010).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한 고찰. 중앙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영숙(2004). 가족생활설계론. 신정도서출판.
- 차은정(1992). 청소년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2005). 이혼의 사회심리적 원인과 상담적 함의,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6(3), 1025-1040.
- 최옥채·박미은·서미경·전석균(2007).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양서원.
-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 한정원(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 한부모가족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4(2), 159-195.
- 황은숙(2007).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한부모가정연구소. 2(2), 1-22.
- 황은숙(2008). 싱글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3(1), 25-39.

- Amato, P. R., & Keith, B.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23-38.
- Arendell, T. (1995). *Father & Divorce*, Sage Publication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885-903.
- Berg, B. & Kelly, R. (1979). The measure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broken rejected and accept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2, 363-369.
- Booth, A., & Amato, R.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rady, S. S. & Matthews, K. A. (200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ethnicity on adolescents' exposure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7, 575-583.
- Broderick, C. (1971). Systematic generation of theory of family sociology. *The Sociological Quarterly*, 23, 427~454.
- Coleman, P.K., & Karraker, K.H. (198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e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influences on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Demo, D. H. and Cox, M. J. 2000.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 A review of*

-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876-895.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85). *Family Therapy: an overview*. California: Brooks/Cole Pub., Co.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ennedy, G.E. (1985). Family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rom single-parent, blended and intact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9(2), 117-126
- Lewis, J. M.,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lips, V. A. (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 NY: Brunner/Mazel.
- Michael,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89-28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e/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Olson, D.,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Peterson, J.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Rhodes, J.F., Elbert, L., & Meyers, A. B. (1994). Social support, relationship problems and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young African-American mo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s about the family. 317-364.

Schaefer, E. s.(1959). A ci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35.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ABSTRACT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aring Burden of Single Parent Household Head on Parent Education Program Needs of Content

Park, Seon Joo
Dep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aring burden on parent education program needs of content. The subjects were 205 single household head of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Frequencies, percentile, means, standardization, ANOVA, t-test,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efficacy of single household head showed low. On the other hand, the child-rearing burden of single household head showed very high.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parent education needs of subject were very high. Also, this study showed that needs for teaching methods related to parent education program were as follows : There was a high demands of single parent on participating in the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the single parent household head asked for off-line education also. Single parent

household head in this study expressed the place where they preferred conduct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as community organization and welfare center. Also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a time limitation when the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single parent education programs. A result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 heads who did not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were higher than the number of parents who did participate.

Third, The parenting efficacy differed from factors related to a function of single household head's sex an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And the child-rearing burden differed form factors related to a function of single household head's sex, age, type of family,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earning and number of children.

Fourth, the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ingle parent education program needs of content. And the child-rearing burden and the single parent education program content needs were significantly related.

<부록 1>

- 한부모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욕구 연구에 관한 질문지 -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한부모가족의 부모로서 느끼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부모로서 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한부모가족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논문을 완성하고,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만들 때 참고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문항에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은 익명으로 비밀이 보장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답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니 염려마시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질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며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 박 선 주

※ 누락 문항이 있는 질문지는 연구에서 사용될 수 없으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항이오니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곳에 ○ 혹은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여

3. 귀하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모자가정 ② 부자가정 ③ 조손가정 ④ 기타 ()

4. 귀하께서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번호	가족관계
가족구성원 수 : ()명	1	
	2	
	3	
	4	
	5	
	6	

5.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력자가 있습니까?

* 조력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살림, 육아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① 있다 (6번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② 없다(6번 질문은 건너 뛰시고 7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6. 조력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친인척 ② 이웃 ③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사회단체
④ 기타 (무엇:)

7.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8.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생산기능직(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자 등)
- ② 서비스직 (음식업, 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인, 소방원, 경찰관 등)
- ③ 판매직 (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 관리자, 판매원 등)
- ④ 사무직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 ⑤ 전문직 (의사, 교사,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판사, 변호사, 의사, 기자, 연구원 등)
- ⑥ 무직
- ⑦ 기타 : (무엇) _____

9.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10. 다음 보기 중 귀하께서 해당 된 곳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한부모 ③ 해당 사항 없음
- ④ 기타 (무엇:)

11.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이혼 ② 사별 ③ 미혼모(부)
- ④ 기타 (무엇:)

12. 귀하의 자녀의 수를 적어주시고,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별	연령
자녀수 : ()명		1		
		2		
		3		
		4		
		5		
		6		

II. 다음은 양육부담감 및 부모효능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 혹은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문항은 양육부담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자녀 양육에 부담감을 느낀다					

* 다음 문항은 부모효능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4 나는 자녀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5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9. 나는 자녀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데 대해 자신이 없다.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11. 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3.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17. 나는 자녀에게 질적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정보와 경제능력이 있다.					
18. 내가 자녀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좋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것 같다.					
19. 내 자녀들은 나의 지도적 역할 보다는 또래관계 및 또래 문화로부터 더욱 영향을 받는다.					

Ⅲ. 다음은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실시현황과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정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 혹은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다음은 부모교육 실시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난 1년간 기관이나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약 ()회 (2~3번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② 없다 (2~3번의 질문을 건너뛰시고 4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부모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육아를 위한 정보
- ② 자녀의 건강에 대한 내용
- ③ 자녀의 바람직한 생활지도
- ④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관한 내용
- ⑤ 부모로서 자질 향상에 대한 내용
- ⑥ 부모의 정신건강, 교양증진을 위한 내용
- ⑦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
- ⑧ 기타 (무엇:)

3. 실시된 부모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5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 프로그램 진행(부모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1회 ② 1달에 2회 ③ 1달에 1회 ④ 2달에 1회
⑤ 1년에 2회 ⑥ 비정기적인 프로그램 ⑦ 기타(무엇:)

※ 다음은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읽어보시고 교육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 혹은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 이다	별로필요 하지않다	전혀필요 하지않다
1.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지식					
2.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 필요한 지식					
3.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					
4. 자녀의 행동특성 이해를 위한 지식					
5. 자녀의 고민을 알기 위한 대화기술					
6.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					
7.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					
8. 자녀와의 갈등 원인을 알기 위한 대화 기술					
9. 자녀의 특정한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10. 자녀가 가족들과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필요한 지식					
11. 자녀의 취미를 알기 위한 교육					
12.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기술					
13. 자녀의 올바른 성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					
14. 자녀의 적성을 알기 위한 교육					
15.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을 확실히 표현하는 대화기술					
16. 자녀의 생활습관 형성 및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17. 자녀의 학교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					
18. 자녀가 가진 능력을 알기 위한 교육					
19.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기술					
20. 자녀의 예절지도를 위한 교육					
2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에 관한 교육					
22. 자녀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교육					
23. 자녀의 발달에 맞는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24.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방법					
25. 자녀의 문제 행동을 고치는 방법					
26.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와 활용 방법					
27. 한부모가족 가장의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내용					

■ 수고하셨습니다. 성의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